

2016년 12월 7일, 구좌읍 종달리 김보배씨 댁, 송정희 조사.
김보배(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뜰을 난디. 이제 큰딸 족은딸 셋딸 영 행 뜰을 세 성제가 난디. 큰딸은 불런.

“너 누게 사냐?” 허난

“난 어머니 덕에 아버지 덕에 삽니다.”

큰딸은 그렇게 골았다 허여 큰딸은 그렇게 곤곡, 셋딸도 불르난 마치 그렇게 언니 곤는 대로 곤는 거라. 허난, 족은딸은 불령 골으난

“난 어멍 덕에도 안 살곡, 아방 덕에도 안 살곡. 난 나 베또롱 아래 선그뭇으로 살았우다.”

족은딸이 경 허난 이젠 어멍 아방덜이 이제 뜰 입어난 옷 시 설적에 입어난 옷 멧 설적에 입어난 옷, 몬 설령 나가렌 족은딸을 내쫓겨 번다 헤여 내쫓가 부난 이제 족은딸은 나간 거 아니? 나가난 이젠 그 족은딸이 나가 부난 오꽃 아방덜이 거지가 됐어 분 거라. 어, 거지가 됐어 살 형편이 아니라. 이젠 게난 그 뜰은 그 옷을 져네 산천으로 가노라 가노라 허난, 어디 그 산천에 불이 베롱헌 디가 잊어. 잊이난 그딜 들어간 모냥이라. 들어가네 영 간 보난 쪼끌락헌 오막살인디 아무도 엊고 할망 혼자만 잊어. 할망 혼자만 잊이난

“아이고 이거 넘어가단 이 나그네 흐쓸 이 집이라도 요 무뚱이라도 빌려주라.”

“어디랑 우리 큰마통이 궁둥이 됐고 어디랑 우리 족은마통이 궁둥이 됐고 빌려줄디가 엇다.”

“아이고 경 헤도 요디 흐쓸만 빌려만 주라.”

하도 허난 이젠, 어디 정제구석인가 어디 빌려줬던 모냥이라. 빌려주난에 빌려쥔 영 보난, 산천이라노난 옛날에 아덜은 그 할망은 세 변이냐 두 변이냐 마만파당 먹어노난 솟이 솟이 아니라. 게난 이제 그 사름이 밤이 영 솟을 강 울앙 보난, 원 기가 차는 거라. 경허난 이젠 그 사람이 그 삼시세끼가 뭔가 걷어당 밤이 그 솟을 다 닦았다 허여. 닦안 쓸 놔네 이젠 밥을 헤연 그 큰아덜신디 들렁 가난

“넘어가단 질간나이, 어디 간 버렝이 밥 헹 왕 지?라 먹으렌 했던 안 먹肯.”
(웃음)

그 밥을 안 먹언, 돌려분 거 아니. 돌려부난 셋아덜도 헤 가난 경 골앙 꼭 언니곧은 듯 골아네 안 먹은 거라. 족은아덜은 헤다 주난 막 막 맛잇게 그 밥을 먹어. 밥을 먹으난에 아, 아시 먹어가난 성이 막 불왓던 모냥이라. 먹고판, 경허난에 영 사람이 영 보니깐, 그 마 파 먹으멍 그 돌 앗아단 젠 것이 그 사람 뜰 눈엔 다 금으로 보이는 거라. 응 금덩어리로 금덩어리로 다 보이는 거라. 돌덩어리

가. 게난 이젠 장 돌아오면은 그 땔이 여자가 그 족은아덜?라

“하나 앗안가그네 풀양 오라.”

“그거 얼마 받아오민 뛰여?”

“가그네 돌아진 것만 주렌허라.”

이것에 금을 치지 말양 돌아진 금만 주렌 허민 사 가는 사람들이 알아그네 그 돈은 줄 거렌. 아 이젠 돌을 하나 앗양 강 아 그걸 이젠 풀레 가니깐 돈을 지엉 올 수가 엇는 거라. 지엉 올 수가 엇언. 이젠 그걸 헹 어떻 헹 가정 오난 아 이젠 이 돈을 어디서 낫이넨 허난에 이 돈을 어떻 헹 벌엇이네 막 그냥 동네 사름이 경 골은 생이라. 경 골으난 경헌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 나 복이 많허니깐 이 담 둘레 놔진 것이 나 눈엔 다 금덩어리로 보였던게 경헤그네. 그땐 그 족은 아덜이영 이젠 결혼사 헹 살았인디. 사노렌 허난 막 어멍 아방덜이 거지가 됐는 거라. 거지가 됐는 허난 그 땔이 잘살아가난

“훈번 우리 거러지 잔치를 허게. 거러지 잔치를 허면은 이제 혹시 거러지덜이 다 올 거난. 거러지 잔치를 허게.”

응 거러지 거러지 잔치를 했다 허는 거라. 이제 일년가 메칠을 거러지 잔치를 다 허난. 원 세상 거러지는 다 와도 지네 어멍 지네 아방은 안 와. 안 오난

“아이고 우리 어멍 우리 아방은 죽엇구나.”

죽엇구나 헤네 이젠 잇이난. 막 날 설르는 날은 영 보난 할망 하르방덜이 손심곡 작데기 짚으곡 헹 막 들어와 들어오는 거 보난 지네 어멍 아방이라 게난

“저디 오는 사름이랑 저디 오는 하르방이랑 밥이곡 국이곡 물이곡 훈 직도 주지 말라.”

그 땔이 종덜?라. 주지 말렌 허난 그 물을 안 쥐 이제 그 할망 뭐하지 안 혀 수과? 손님덜 다 가 부난 할망 하르방덜은 이젠 방으로 모신 거라. 땔이 이 할망 하르방덜 다 몸 모욕을 시키렌. 종덜?라. 모욕을 시키렌 허난 이젠 종덜은 그 사람 문딱 다 모욕을 시켠 이젠 옷을 헤다네 세 옷을 헤단 바짝 입져네 이제 할망 하르방덜이 앗인거 아니. 앗어네 이제 밥을 이젠 잘 출령 밥을 헤 온 거라. 어멍 아방나시 종덜이 헤여 오난에 그 밥을 영 허젠허난 아이고 난 정말로 응, 젠 아무 쥐도 엇노렌 게난 그 땔이 저 할망 하르방덜 옛말이나 하나 골웁센 그 밥을 먹으렌 앗이니깐 옛말이나 하나 골으렌 허난

“난 들은 말도 본 말도 엇수다. 들은 말도 본 말도 엇인디 땔 세 성제가 난디. 큰딸도 이제 어머니 아바지 덕에 사노렌 허곡. 셋딸도 어머니 아버지 덕에 사노렌 헨 족은딸은 이녁 베똥 선그뭇 아래로 사노렌 헨 내쫓가 부난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뛰어네.”

“어머니 아버지 나 얼굴을 훈 번 복센.”

경 헹 보난 딸이라. 경 헹 살았던 헙디다만은 뭐 옛말은 우리 할망 하르방 잇일 땐 많이 들었주만은 다 앗어비연 옛말 골아지크라.

- 핵심어 : 족은딸, 마퉁이, 복, 금, 거러지 잔치, 마, 베또룡 아래 선그뭇, 큰딸, 셋딸